

해방 후 중학교 가정 교과서 변천 연구

김 명 지* (충남 연기군 연동중학교 교사)

윤 인 경 (한국교육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6차에 걸친 개정을 거쳤으며, 1997년 12월 제7차 교육 과정이 고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서의 개발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가정 교과서의 전반적인 외형 체제와 내용적 체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장 교육에서 가정과 교사들의 교재 연구와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사용되어 온 중학교 가정 교과서 21권을 가지고 외형적 편찬체제와 내용을 교육과정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빈도(N)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체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앞표지→속표지→머리말→목차→본문→뒤표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칼라화보, 면지, 국민교육헌장, 부록 등이 삽입되어 있었다.

자료는 삽화, 사진, 표, 칼라화보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나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

집필진은 현장 교사의 참여율이 너무 낮아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도 반영되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었다.

단원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교수요목기,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통합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진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제3차 교육과정기는 통합교육차원이 아닌 영역별로 나뉘어 단원 설정이 된 것이 특징이고, 가정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영역이 삽입된 것이 특징이다.

제5차 교육과정기는 단원 수가 많이 축소되었고, 제6차 교육과정기는 가족생활, 소비자와 자원 관리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다른 영역의 내용들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영역의 구성과 영역별 내용 및 비중을 각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의생활 영역이 31.4%, 식생활 25.9%,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 12.9%, 자원관리와 소비생활 영역 12%, 주생활 9.3%, 직업과 진로 영역이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활동 및 실험, 실습 수와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의 실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요목기에는 실습(14회)보다는 활동(16회)의 양이 많았고, 실생활과 연관지어 다루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와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실습위주의 활동이 많았고 제6차 교육과정기 때는 학습자의 활동을 많이 하여 학습의 효과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여 교과서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다.